

#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for the Multicultural  
Immigrants in Korean Local Society  
: In Relation to the Role for Saemaul Undong

이 광 석\* · 이 정 주\*\*

Lee, Kwang Seok · Lee, Jeong Ju

## ■ 목 차 ■

- I. 서론
- II.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 합의와 인정
- III. 인정패러다임
- IV. 인정투쟁의 실현형태
- V.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새마을운동의 역할
- VI. 결론

이 글은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과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반추하고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이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 3세대 학자인 호네프(Axel Honneth)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보존을 위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하나는 흄스나 푸코의 이론에서 보이는 인정패러다임과 대화론자 또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힘입은 합의패러다임이 그것이다. 이 글은 먼저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을 정리한 후, 합의패러다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인정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주장하듯이 합의가 실질적 내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압없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전제하는데, 이는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주저자)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7. 4. 17, 심사기간: 2017. 4. 17~2017. 5. 30, 게재확정일: 2017. 5. 30

강요된 합의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므로, 그의 사회 이론은 의사소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계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호네트의 인정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는 타자존중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초하면 여전히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패러다임의 핵심 모델인 인정투쟁 모델의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에서 더 확연히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축적기능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들이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의 주류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범주가 바로 이들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산업재해, 복지혜택 침해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그 지역의 주민임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인정투쟁이고, 이것은 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성을 발휘해 온 전통을 가진 새마을운동이 나름으로 공헌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제어: 인정투쟁, 합의패러다임, 사회적 연대성, 다문화 이주민, 새마을운동

This paper deals with Korean multiculturalism, reflecting on the concept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ccording to Axel Honneth's discussion, the paradigms for self-protec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ecognition paradigm and consensus paradigm. The former was originated from Thomas Hobbes, and the latter was from J. Haberma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 of J. Habermas' discussion, which does not give a solution about the social conflict or the struggle from the micro level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 point in his theory, this paper adopts the alternative, which is Axel Honneth's discussion. Following Honneth's discussion, the core concepts in recognition struggle are identity and reciprocity, which have three characteristics: love, recognition of same right, and solidarit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the violation of immigrants' rights in Korean society: the violation of life, the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the violation of immigrants' welfare. It shows them the need for protec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so-called neo-liberal stream, the role of government puts emphasis on accumulation, which tends to igno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especially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I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support base of Saemaul Undong in the Korean multiculturalism. That is, the protection for them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struggle, which is the new support base of Saemaul Undong.

□ Keywords: recognition struggle, consensus paradigm, solidarity, multicultural immigrants, Saemaul Undong

## I. 서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대의 핵심어가 되었다. 그 이슈가 어떤 국가의 독립운동 과정이든,<sup>1)</sup>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든, 여성의 돌봄 노동이든, 동성애 결혼이든, 이슬람교의 히잡이든 간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이제는 정치 이념으로 상승하고 있다(Haywood, 2007). 이 개념은 사회갈등이 진행되는 사회에서, 특히 다문화사회 속에서 상대적 박탈이나 사랑의 왜곡, 권리 보장의 은폐성, 연대와 상호주관성 측면에서 수많은 갈등의 도덕적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Fraser and Honneth, 2003).

이와 같이 국가적 규모에서부터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늘 존재하는데, 그 핵심은 인정투쟁이라는 점이다. 즉 삶이란 인정이며, 그 과정은 인정투쟁이며, 그 근저에는 정체성 있음이 자리잡고 있다(Parekh, 2000; Taylor et al., 1994). 그렇다면 그 해결책 또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과학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지도 않고 따라서 전통적인 개념인 갈등이나 협상에 기초하여 이론 전개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사회과학에 도입된다면 갈등 현상에서 행정이 우위에 서거나, 다문화 현상에서 선주민이 우위에 서는 해결책이 아니라 상대방 존중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이론화를 통한 사회과학 발전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제(agenda)에 존중이나 정체성의 인정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용법에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를 쓴다. 그 사용법 근저에는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언어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와 다른 생활양식(form of life)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른바 다른 사람

1) 1966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의 뮌헨 올림픽 테러와 같은 인정받기 위한 극단적 사건이 있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을 틀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한편 서구 근대라는 개념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근대의 특징은 가장 확실한 토대 위에서 체계적인 학문을 구축하려 하였다.<sup>2)</sup> 그 확실한 토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였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 속에서 찾는 행위는 진리는 '우리'라는 공동 작업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자명한 대화적 공리를 망각한 것이다. 여기에 대화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김영필, 1999), 이는 후술하는 합의패러다임으로 연결된다.

이제는 합의패러다임을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인정패러다임이다.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지난 20 여 년 간 하나의 공통된 이상으로 입증된 것은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받거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생각이다(Taylor et al.; 1992). 이는 정의의 개념으로 상승하는데, 사회관계에서 단지 물질적 재화가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 지적을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적용할 때,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배려가 이러한 정의의 개념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미약하다. 이 글은 합의나 대화의 중요성의 제기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패러다임과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반추하고,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배려를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sup>3)</sup>

## II.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 합의와 인정

### 1. 합의와 인정: 그 개념과 문제점

호네프트(Axel Honneth)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보존을 위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하나는 흄스나 푸코의 이론에서 보이는 인정패러다임과, 대화론자 또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힘입은 합의패러다임이 그것이다(Honneth, 2014: 15).

2) 이를 보통 '아르키메데스적 기점'이라 부른다. 데카르트의 아르키메데스적 기점은 바로 나-확실성이다. 즉 나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세계도 신도 타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김영필, 1999).

3)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에 포함되는 당사자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난민을 포함한다(이광석 외, 2014: 56-57).

합의패러다임은 가장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는데(Cuff et al, 2016),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현대사회의 특징이란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로부터 의사소통사회(Kommunikationsgesellschaft)로의 전환에 있으며, 이는 행위이론적 구성의 측면에서 노동이라는 자기보존적 활동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규범적 지향들 간의 갈등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따라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행위의 네트워크로 규정된다(서도식, 2008). 이러한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적 투쟁의 기초는 자연적 차원이 아니라 규범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서도식, 2008).<sup>4)</sup>

대화론자에게서 또는 의사소통행위론에서 유래하는 합의패러다임은 형식적 합의의 중요성과 모든 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sup>5)</sup> 사회구성은 근본적으로는 이 합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 이래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Heywood, 2007). 이와 관련하여 아펠은 이상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규범, 즉 대화의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김영필, 1999).

- 1) 모든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답변하고자 하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일 의도나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 3) 상대방을 성실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으로서 대해야 한다. 누구든지 질문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특권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4) 인종적 및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4)이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합의가 실질적 내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압없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하버마스(J. Habermas)는 주장한다.<sup>6)</sup> 그 의미는 합의에 있어서는 억압이 있는

4) 따라서 대화론자들의 관점은 “한 사회의 질서는 개별적 행위자들 사이의 생존 투쟁의 타협적 산물이 아니라 각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좋은 삶’의 규범적 지향들 간의 투쟁이 조정된 결과이다”라고 Honneth는 설명하고 있다. 투쟁모형에서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경제적인 것(the economic)’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빚었다고 한다(서도식, 2008).

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김영필, 1999). 이 특성을 사이존재라고 한다(이기상, 2015).

6) 하버마스는 철저하게 언어적으로 전환하여 전통적인 의식철학을 언어철학으로 대체한다. 그는 언어와

합의, 또는 강요된 합의가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 행정에서 이 합의의 형식성이나 강요된 합의가 지적되었다(이광석, 2014). 물론 하버마스는 진정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복원시키기 위해 주로 논의의 형식인 담론의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하버마스의 사회 이론은 의사소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계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즉 합의패러다임은 그 형식성으로 인해(Honneth, 2014: 126) 어떻게 대화의 상대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또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대해 호네트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도 의사소통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추동하는 기제(mechanism)으로서 인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호네트의 인정패러다임은 도덕적 기초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이끄는 추동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서도식, 2008).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는 타자존중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초하면 여전히 사회에서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Honneth, 2014: 126).

인정패러다임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홉스(Thomas Hobbes), 칸트(Immanuel Kant)나 피히테(Johann G. Fichte) 등에게로 소급할 수 있지만, 보통은 헤겔(Georg W. F. Hegel)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헤겔에 따르면 인정 과정은 투쟁, 그것도 생사를 건 투쟁이다(Honneth, 2014).<sup>7)</sup>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을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

언어 이전의 두 지평간의 대화를 강조하였던 가다머와는 달리 철저하게 언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언어에 대한 선형적 비판은 바로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는 일과 연결된다. 언어는 체험된 내용을 표현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및 판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제(mechanism)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김영필, 1999).

- 7) 헤겔에 따르면 인정 과정은 투쟁, 그것도 생사를 건 투쟁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의식의 부정이 단지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발전도 가져오지 않는 결말을 맞게 된다. 부정이 단순히 타자의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는 자기의식에 대한 자신의 확신마저도 부정하게 된다. 생사를 건 투쟁에서 한편의 자기의식의 죽음은 다른 한편의 자기의식의 확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므로 두 자기의식은 각자 타자의 승인 혹은 인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승인, 인정은 '하나의 자기의식'에서 보자면 타자가 보존되는 가운데에 타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그' 하나의 자기의식을 승인,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본질적 두 계기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순순한 자기의식'이요, 다른 하나는 '물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타적 의식이다. 그런데 '이 두 계기는 일단 서로가 불평등한 대립적 관계'에 있다. 하나의 자기의식은 자아를 끝까지 고수하고 다른 자기의식은 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종결됨으로써 전자는 자립적 자기의식의 지위를 유지하고 후자는 비자립적 의식이 된다. 전자는 주인이고 후자는 노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 관계는 곧 역전되기 때문이다. 인정투쟁을 핵심 개념을 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귀결은 주인과 노예 쌍방에 있어서 자기의식의 불충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쌍방은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 실현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순순한 사유라는 내적 세계로 후퇴함으로써 자신들의 결함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헤겔은 금욕주의(스토아주의), 회의주의, 불행한 의식으로 이어지는 서양 고대와 중세의

〈표 1〉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

	합의패러다임	인정패러다임
의미	양 당사자의 합의	존중(respect)에 따른 인정
인간성에 대한 가정	성선설	성악설
원류	칸트, 로크, 루소,	헤겔

출처: Forst(2007), Owen and Tully(2007), Cuff et al.(2016), 문성훈·이현재(2014: 15)를 보충 및 변용

인정의 기초는 자기의식으로, 자기의식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는 '욕구하는 자기의식'에서 '인정하는 자기의식'으로의 이행이다. 즉 타자를 자아로서 의식하는, 자기의식에 대하여 또 하나의 자기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의식은 사회학자 미드(George H. Mead)의 설명이 유용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의식은 'I'와 'Me'로 나누어지게 되고(Coser,1977), 여기에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출현하게 된다(〈표 4〉 참조). 인정투쟁이 의미하는 바는 데카르트(R. Descartes) 이래의 ego로 향하는 흐름(Husserl,1970)보다는 타자(alter) 없는 ego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Coser,1977: 500).<sup>8)</sup> 이를 다문화 사회에 적용하면 인정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 2. 한국에서 다문화의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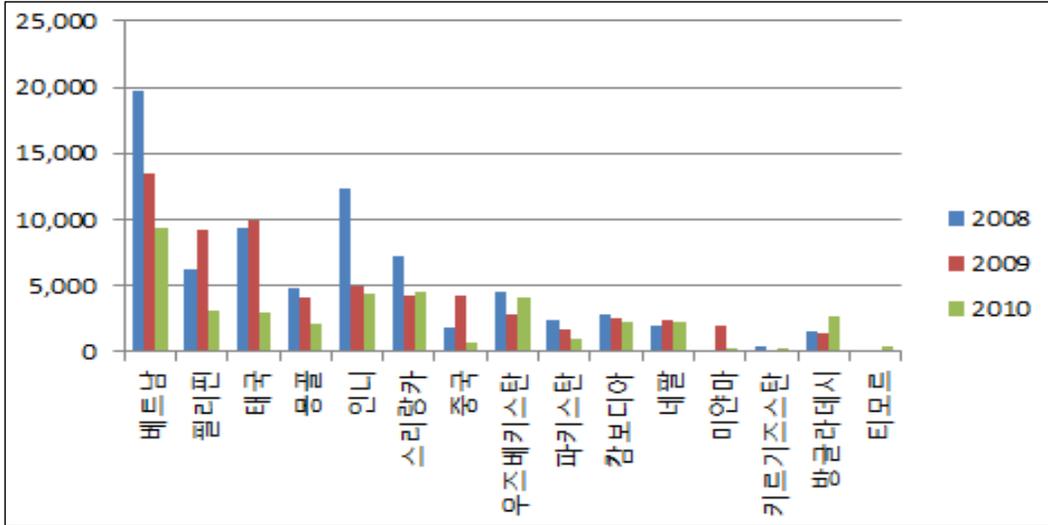
익히 알려졌다시피 인정패러다임의 연구는 앞서 설명한 호네프의 연구로부터 활성화되었지만 그 외에도 외국에서는 테일러(Taylor et al.,1992)를 비롯한 몇몇 선구적 연구가 있었다. 캐나다의 현실정치로부터 발화된 다문화주의를 규정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라는 테일러(Charles Taylor)의 개념은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테일러(Taylor et al.,1992)보다는 반향이 작았지만 후쿠야마(Fukuyama,1992)에 의해 인정투쟁의 개념이 사회과학적으로 해석되었다. 후쿠야마(F. Fukuyama)의 주장은 역사를 진보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진보의 원동력은 경제와 함께 인정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야말로 이러한 인정투쟁의 완성이기 때문에 역사는 끝났다고 한다.

한국에서 인정투쟁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이들인 이주민 현황을 국가 통계포털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을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1〉이다.<sup>9)</sup>

역사를 통해 예증한다(서도식, 2008).

8) Martin Buber의 용어를 빌리면 '너(thou) 없는 나(I)'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Coser, 1977: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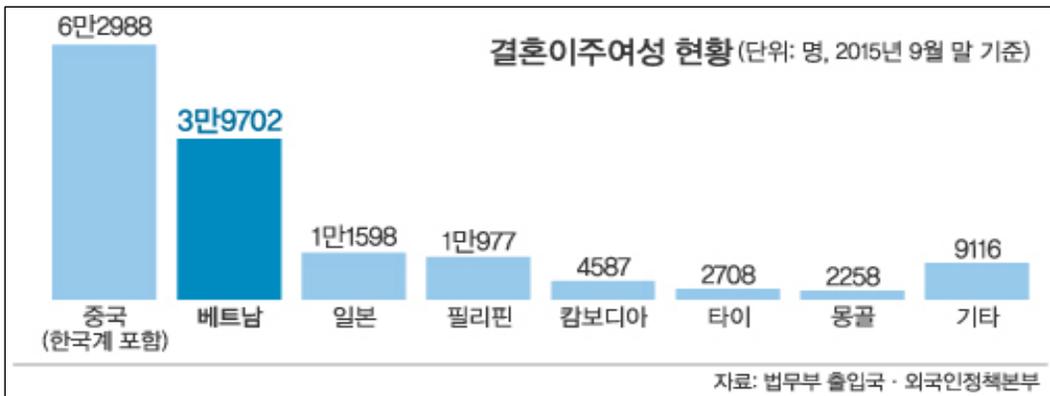
<그림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도입자수)



출처: 여성가족부(2012)

여기서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2>이다.

<그림 2> 결혼이주여성 현황



이어서 체류외국인 현황을 나타낸 도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9)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는 2012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한다.

&lt;표 2&gt; 체류외국인 현황

(각 년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체류 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46,32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476,179	548,553	551,858	557,941	595,098	529,690	543,438

출처: 장하나 의원실(2013)

한편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이주민 관리의 기제(mechanism)로 나타난다. 현재의 관리의 기제를 나타낸 것이 아래 <표 3>이다.

&lt;표 3&gt; 이주민 관리의 기제

구분	세부 구분	법적 지위	관리기제	한국사회 통합여부	국민/비국민
국제결혼	국제결혼 여성	합법	다문화주의	통합대상	준국민
	국제결혼 남성	합법	-	-	준국민
아동	국제결혼 가정 아동	한국인	다문화주의	통합대상	국민
	이주노동자 자녀	불법	최소 인권	귀환대상	비국민
이주 노동자	등록 이주노동자	합법	고용허가제	귀환대상	비국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강제추방, 의도적 묵인	귀환대상	비국민
재외동포 (중국)	동포	합법, 불법	방문취업제	통합·귀환대상	비국민

출처: 오경석 외(2007: 102)

체류외국인이 겪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아울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sup>10)</sup>

10)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하나 의원실, 2013). 사지드(파키스탄) 등 4명은 회식자리에서 사장의 요구로 한국노래를 부르다 틀려 비웃음을 샀다. 서니라는 파키스탄인이 한국사람에게 한국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한국 동료가 얼굴에 밥그릇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 흘리는 서니를 차장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파키스탄 4명이 한국인을 응시하자 “똑바로 보지 말고 눈을 아래로 보라”며 사장은 술병과 컵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들은 이유없는 폭행에 수치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당한 문화적인 치욕감을 느꼈다. 회사 측에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정의 위로금과 사과를 받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대부분 이슬람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음주는 대단히 비종교적, 반문화적 행위로 이해된다).

다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나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비교적 근래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 이 중 인정투쟁과 가까운 유형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학에서는 이희영(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연구로서 이들은 한국사회의 일반화된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친북이나, 반북이냐'라는 정치적 양자택일의 논리,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소속(belonging)을 넘어 '헌신', '동화', '우월', '비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철학의 영역에서는 서도식(2008)의 연구가 있다. 의사소통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투쟁 모델은 인간의 자연적 자기보존이 아니라 그의 사회성이 지닌 규범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유석(2003)의 연구는 문명의 충돌을 인정투쟁과 관련하여 연구한 글로, 지금 현재 세계 현실은 갈등의 장(場)으로 갈등의 핵심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이고 세계화와 신지유주의의 흐름 속에서의 인간의 삶의 조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의 윤리,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혜숙(2013)의 연구는 복지제도나 복지국가의 발전을 주로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의료(건강)보험의 확대 과정을 가족 인정투쟁이라는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의 복지 수급권을 주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 피부양자 제도가 표방했던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규범이라는 제도적,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여성' 가입자의 가족들과 '방계'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둘러싼 가족 인정투쟁을 펼쳐 나갔다고 주장한다.

법학에서는 이용일(2012)의 연구가 있다. 이 글에서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가 국제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와 함께 독일에서 하버마스의 논평을 다루고 있다. 하버마스의 주장은 잘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 개인적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적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ee(2013)의 연구는 법학에서의 연구로, 상호인정의 과정이나 현상보다는 제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기본권과 그 실현형태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and of residence)는 기본권(citizenship right)으로 인정받는데, 이 중에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의 이동도 포함된다. 물론 그 권리의 하나로서 가족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며 자격증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처럼 인정투쟁에 대한 연구는 이제 큰 걸음마를 떼고 있지만 이 분야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거나 정책 입안에 있어서 사회과학에도 유용한 이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다문화 관련 보고서들 중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의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를 심층 분석하였고, 이어서 몇몇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sup>11)</sup>

### Ⅲ. 인정패러다임

정체성의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인정패러다임은 호네프와 테일러에게서 힘입은 것으로, 특히 헤겔의 철학에서 연유한다. 헤겔이 말하듯이 “인정 행위 속에서 나는 개별자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 행위 속에서 존재하며---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인간 본유의 것이며---인간 자체는 인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상태를 극복한다”(Honneth, 2014: 97). 호네프는 이 철학적 논의를 사회학적으로 전환시킨다. 물론 이 전환의 공로는 미드(G. Mead)에게 있다.

미드는 자아(self)는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한다는 명제에서 보듯이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자아와 사회적 관계에서 헤겔(Georg W. F. Hegel)이 주장한 자아 중심과는 달리, 미드는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역전시켜 자기의식의 형성에서 타인에 대한 경험이 우선함을 주장하였다(Honneth, 2014: 152). 그의 이론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4>이다.

11) 활동가와의 인터뷰는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회는 활동가들로서, 장소는 OO 이주민 인권센터이고, 진술인들은 강O숙, 정O영, 김O주 등의 4인이며, 일시는 2015.10.15.이다. 2회는 새마을운동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최O석, 정O영 외 3인과의 인터뷰이고 일시는 2017.3.18.이다. 3회와 4회는 조O선, 김O선 외 3인이고 일시는 2017.3.24. 및 2017.4.3.이다. 기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들로 수시로 도움을 주었다.

〈표 4〉 미드의 자기의식의 형성과 타인에 대한 경험

구분	주격	목적격
정의	① 타자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Coser,1977: 496) ② 사회적인 나를 인식하는 나 (Mead,1962: 173)	① 그 유기체가 가정하는 타자의 태도들의 조직화된 모습(Coser,1977: 496) ② 인식하는 나의 사회적 측면 (socialized aspect of the person)
	타자 태도들의 조직화가 me를 구성하고 다음에 유기체는 그 me에 대해서 I로서 반응한다(Coser,1977: 496).	
설명	① 나의 모든 현재적 행위의 규정되지 않는 원천 ② 비록 인지될 수는 없지만 행위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을 책임지는 개성의 심급(審級) ③ '주격 나'는 항상 '목적격 나' 속에 의식된 행위 표현들을 사후에 새롭게 해석하는 관계	① 개인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함으로써만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 ② 타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상(像) ③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위조차도 항상 이미 지난 것으로 보존
중요성	① '주격 나'와 '목적격 나' 사이의 내적 마찰을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갈등 형태 ② '목적격 나'는 자신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규약적 규범을 구체화한다. ③ 또한 주체는 항상 '주격 나'의 충동성과 창조성에 대한 사회적 표현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규약적 규범을 스스로 확장하려고 한다. ④ 내면화된 전체의 의지와 개성화 요구 사이의 긴장관계와 이 긴장관계는 주체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투쟁으로 나아간다. ⑤ '목적격 나'의 존재는 주체로 하여금 '주격 나'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인정을 모색하게 한다.	

출처: Mead(1962), Honett(2014: 151-165), Coser(1977)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자기의식의 형성에서 타인에 대한 경험이 우선한다는 개념에서 인정이 도출된다(Honett, 2014: 176). 인정 운동을 야기할 수 있는 힘은 '주격 나'의 통제할 수 없는 층들이다. 이 층들은 일반화된 타자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자유롭고도 강제 없이 외화(外化)될 수 있다.<sup>12)</sup> 주체들은 '주격 나'의 압력 아래서 '일반화된 타자' 속에서 구현된 규범들을 해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권리인정관계의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되어 있다(Honett, 2014: 170).<sup>13)</sup> '목적격 나'의 상호주관성의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이 인정패러다임의 모델들과 인정투쟁모델의 실현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2) 하버마스가 시민사회의 이상적 모델로 '커피숍 모델'을 꼽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호네프는 여기에 인정투쟁을 덧붙였다는 점이 그의 공헌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호네프에 따르면 이성적 토론의 결과로 사람들이 곧바로 사회 변혁에 뛰어들다기보다는,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경험에서 느끼는 '도덕적 울분'이 더 직접적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시민의 분노가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위한 힘이 될 때,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고 한다(하지울, 2016).

13) 이를 미드의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정투쟁이라 부른다고 한다(Honeth, 2014: 170). 미드의 사회심리학에서는 하나의 '나'가 다른 '나'와 통신하게 되는 매체가 바로 정신이라고 한다(이훈,1984). 그 의미는 나의 인식에 따라 승인된 규범이나 행동을 따를 때에만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IV. 인정투쟁의 실현형태

일련의 상호인정 형태는 성공적 자아실현의 전제이며, 상호인정의 부재는 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무시를 경험함으로써 인정투쟁의 동기를 부여한다(Honneth, 2014: 142). 인정패러다임은 인정모델과 인정투쟁모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회나 국가가 인정투쟁이나 합의 결과로 승인한 바를 말하는데 비해, 인정투쟁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인정을 위한 또는 합의를 위한 투쟁의 단계에 있음을 말한다. 인정모델과 인정투쟁모델로 나누는 초점은 다문화 현상을 억누르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인식 전환과 그 인정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Watson, 2000).<sup>14)</sup> 또 권리는 시혜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이다. 예컨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차이는 시혜와 권리의 차이이다. 따라서 인정투쟁은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력이다. 예컨대 영국 대처 정부 아래에서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IRA 대원이 옥중에 단식투쟁으로 저항한 것은 아직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정투쟁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 정당성의 근거는 가치에 입각한 행위라는 것이고 그 가치란 상호존중(reciprocity)이다(Honneth, 2000). 이를 통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당성은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을 함축한다(Pierson and Thomas, 2002: 304). 즉 인정이나 인정투쟁을 비롯한 개념의 이해를 위한 전제는 공적(公的)이고 합리적인 평가(public and rational evaluation)에 기초한다라는 점이다(Zutavern and Kohli, 2010).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든가 비합리적인 평가에 기초하게 되면 그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호네트의 인정투쟁 모델의 핵심 개념은 정체성과 상호인정관계이다 이는 세 가지 실현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사랑, 동등한 권리의 인정, 사회적 연대가 그것이다(문성훈·이현재, 2014).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개념들인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적 권리의 불인정이나 유보, 사회적 연대에서의 배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무시나 모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무시나 모욕은 일종의 도덕적 훼손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훼손 행위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투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 <표 5>이다.

14) Watson(2000)에 따르면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10여년의 간극이 있다고 한다.

〈표 5〉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인정 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부여
개성의 차원	육구 및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 관계 (권리)	가치공동체 (연대)
진행방향	-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 제외시킴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의 구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출처: Honett(2014: 249)

물론 호네프의 인정투쟁 모델이 암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공동체적 행위공간으로 전제함으로써, 이론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즉 국가 사이의 경계넘기(border crossing)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이주 및 소수자로서의 삶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시사한다(이희영, 2010). 그러나 인정투쟁은 자아탐색에서 시작한다는 명제에 초점을 맞추면, 낯선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주자 및 소수자에 관한 이론의 발전 가능성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다. 특히 이들에 대한 혐오, 폄하, 범죄에 노출된 이들에게 인정투쟁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인정투쟁의 실현형태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로티(Richard Rorty)나 호네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 권리, 연대성이다. 이 글도 이에 따라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사랑이란 현실 속의 이상에 대한 예감으로 뜻매긴다. 즉 사랑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대립하는 주체들이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게 하는 원초적인 경험으로 간주한다(Honneth, 2014: 89-90). 여기에는 도덕적 공동체의 통합 형태와 남녀 간의 정서적 관계나<sup>15)</sup> 어린이가 독립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포함한다(Honneth, 2014: 192).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매매혼적 성격이나 한국 남성 중심의 다문화가정 형성이다. 이른바 사랑의 숙성과정이 없는 결혼이다.<sup>16)</sup> 예

15) 헤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적 의지가 자신을 살아있는 주체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발전 단계, 즉 사랑이라는 인정관계가 그 내적 경험 잠재력을 확장하는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에로틱한 사랑관계가 확립되면서 '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식'은 두 당사자의 공통된 인식으로 발전한다. 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인식은 제도적인 부부관계에서 협동적 행위로 나타난다(Honneth, 2014: 90).

16)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조선일보 2006.4.21.을 참조하라.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여성인권단체에서

를 들면 상당수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나 시대에 대한 신상·생활 정보 등을 정확히 모른 채 시집을 오면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고, 심지어 이들 여성이 목숨을 잃는 강력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sup>17)</sup> 그 의식의 밑바탕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의 부족분을 메꾼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다(강미옥, 2014).

사랑과 관련된 이슈는 순혈주의 관점에서 혼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혼혈에 대한 비난과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위험적인 이주민’이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56-57).

체류외국인이 겪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아울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사랑이라는 인정관계는 권리인격체의 구성요건이라는 틀에서는 일종의 불완전한 경험 영역이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관계 속에서의 주관적 정신은 사회적 교류를 규율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투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권리와 의무는 개인들이 상호경쟁 관계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호주관적 이념에 기초하는 인정관계이기 때문이다(Honneth, 2014: 92-96).

그러나 권리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요구의 담지자로서 동등한 존중을 경험하게 하는 상호인정관계이다(Honneth, 2014: 122). 즉 인정 그 자체가 인정투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인정투쟁은 인정을 향한 과정이기에 권리관계에서 인정과 인정투쟁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이주민의 법적 권리는 훼손되거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은 자력으로 체류연장이 불가능하며 이주 노동자는 내국인과는 달리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는다(이른바 출국 후 퇴직금 정산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이 진정한 사건을 침해된 권리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6>이다.

는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사이에 놓여 있다”고 한다(문경희, 2006).

17) 신문에 보도된 사례들도 많다. 그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7월 어느 날, 전북 남원의 한 절벽 도로 아래로 추락한 차량 속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S(28)씨의 주검이 발견됐다. S씨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건너온 지 9년째 되던 때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남편이 가정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세계일보, 2015. 10. 25).

<표 6> 이주민 관련 진정 사건의 침해된 권리

사건유형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기타	계
건수	1,978	11	150	62	6	2	5	6	4	1	1	54	2,280
비율 (%)	86.8	0.5	6.5	2.7	0.3	0.1	0.2	0.3	0.2	0.0	0.0	2.4	100.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1: 51)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정한 사건들을 볼 때, 이주민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법익이 거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다문화가족에게로 확장하여 그들이 차별을 받은 경험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가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다문화가족의 차별 받은 경험

구분		2012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수	9,167	57,369	66,536
	비율	13.8	86.2	100
성별	여성	12.2	87.8	100
	남성	15.3	84.7	100
연령	9-11세	14.8	85.2	100
	12-14세	12.7	87.3	100
	15~17세	9.5	90.5	100
	18세 이상	15.6	84.4	100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중국	12	88	100
	중국(한국계)	12.4	87.6	100
	대만, 홍콩	11.2	88.8	100
	일본	15.9	84.1	100
	몽골	12.7	87.3	100
	베트남	12	88	100
	필리핀	17.1	82.9	100
	태국	15.9	84.1	100
	캄보디아	14.8	85.2	100
	파키스탄	29.4	70.6	100
	우즈베키스탄	15.6	84.4	100

구분		2012년		
		있다	없다	합계
외국계 부모 출신 국적	러시아	11.3	88.7	100
	미국	14.1	85.9	100
	캐나다	4.2	95.8	100
	동남아 기타	15.7	84.3	100
	남부아시아	13.7	86.3	100
	서유럽/대양주	12.3	87.7	100
	기타	27.4	72.6	100

출처: 여성가족부(2012)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지만 실현이 더딘 것은 권력자원을 비롯한 자원들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태도가 그들이 이른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차이가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류의 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단계에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성이란<sup>18)</sup> 어떻게 남을 향한 동기부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철학자 로티(R. Rorty)는 연대성의 근거를 우리 각자의 내부에 있는 본질적 인간성에서 찾는데, 이는 '우리-의식'(we-intentions)을 통한 도덕적 의무에서 출발한다(Rorty, 1989). 연대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를 '나와 그것(I and i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세계를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연대성이 형성된 세계(다른 표현으로 우리-의식이 형성된 세계)를 '나와 너(I and thou)'로 요약한다(Buber, 1974). 즉 나와 세계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어울리는 관점으로 '우리'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Rorty, 1989). 따라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와 그것'이라는 세계관과, 연대가 이루어진 '나와 너'의 세계관으로 양립된다. '나와 너'의 세계관에서 연대가

18) 사회적 연대성의 기초는 상호존중(reciprocity)에 있다고 한다(Horton and Gregory, 2009: 226). 원래 연대(solidarity)라는 개념은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에서 유래한다. 그는 가치합의(value consensus)와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에 관해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차이가 극소화되고, 공통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헌신한다는 구성원들의 유사성을 지닌 곳에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후자는 구성원들 사이의 분업의 산물로, 구성원들 사이의 유사성에서가 아니라 차이점에서 발전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사회 내에서 기능의 분화가 증대되기 때문이다(Coser, 1977: 131).

이루어진다.<sup>19)</sup>

인정투쟁의 실현형태를 논의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연대에서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랑이나 권리 및 연대와 같은 인정투쟁의 실현 형태의 의의는 돕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일이 되고, 참여를 통해 소속감(we-feeling)으로 승화될 수 있다(이중수, 2015).<sup>20)</sup> 사랑은 사랑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공동체 정신이 싹트는 터전이다. 여기서 전형적인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객관세계가 지향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와 대조된다. 권리인정에서 특별권력관계가 해체되고 대등적 관계에서의 소통(또는 협상)로 나아가게 된다. 또 연대의 인정에서 제3섹터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 V.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새마을운동의 역할

### 1.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이주민을 위한 인정투쟁의 의미

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이나 사회구성원들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현실에서는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그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는 사실도 익혀 알려졌다(Taylor et al., 1992).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중에 하나는 연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의 권리옹호 활동을 돕고 나아가 인정투쟁으로 이끄는 방법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정투쟁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범주를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으로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보호해 주는 당사자는 합법적 체류에 한정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2012). 그런데 근래 이슈가 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들의 인권 침해는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sup>21)</sup> 생명권 침해,<sup>22)</sup> 재산권 침해, 산업재해, 복지혜택이나 기타 기본적 권리의 향유

19) 복지의 영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집합주의를 강조한다(Powell, 2007: 47)는 뜻이다. 이것이 복지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위험을 사회화(risk-pooling)하는 것이다(Jordan, 2010).

20) 이는 이론적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명제로 표현되고(Sandel, 2012), 그 현실적 실현형태는 공동체이라 할 수 있겠다.

불가<sup>23)</sup> 등 다양하다(대한변호사협회, 2012; 장하나 의원실, 2013). 한편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도 무방비 상태임을 증언하고 있다.<sup>24)</sup>

즉 인권의 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앞서 인용한 바처럼 ‘한국사회의 부족분을 메꾼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다(강미옥, 2014). 그 결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가정에 국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가족유지 vs. 인권이라는 도식에서 보면 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심지어는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려는 과정의 이면에는 여전히 매매혼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up>25)</sup>

앞서 보았던 사랑이니, 권리니, 연대니 하는 인정투쟁의 실현 형태는 신자유주의적 강력한 유인 수단 앞에서 거의 의미없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매매혼적 성격이다.<sup>26)</sup> 이를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3>이다.

21) 본국에서 600만원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하고 연수생 신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알룸 등 3명은 회사측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사장과 한국인 직원들에게 이유도 없이 매일같이 폭행을 당해야 했다. 계속된 폭행에 심한 허리부상을 당한 후, 일을 쉬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억지로 끌려가 일을 해야만 했고 4-5개월간 계속된 폭행에 견디다 못한 이들은 송출업체에 도움을 요청했다(연수생들을 관리·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매월 24,000원씩의 사후관리비를 월급에서 공제해 오던 상태임).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한 끝에 사업장에 나타난 송출업체 측은 사업주의 말만 듣고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에 사인하기를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거기에다 원한다면 다른 회사로 옮겨 줄 테니 한 사람당 100만원씩 추가로 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우롱했다(출처: 장하나 의원실, 2013).

22) 타티황옥씨는 2010년 7월 8일 한국인인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 남편은 8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의 부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였는데,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런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타티황옥씨는 한국에 도착한 지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맞아 살해되었다(대한변호사협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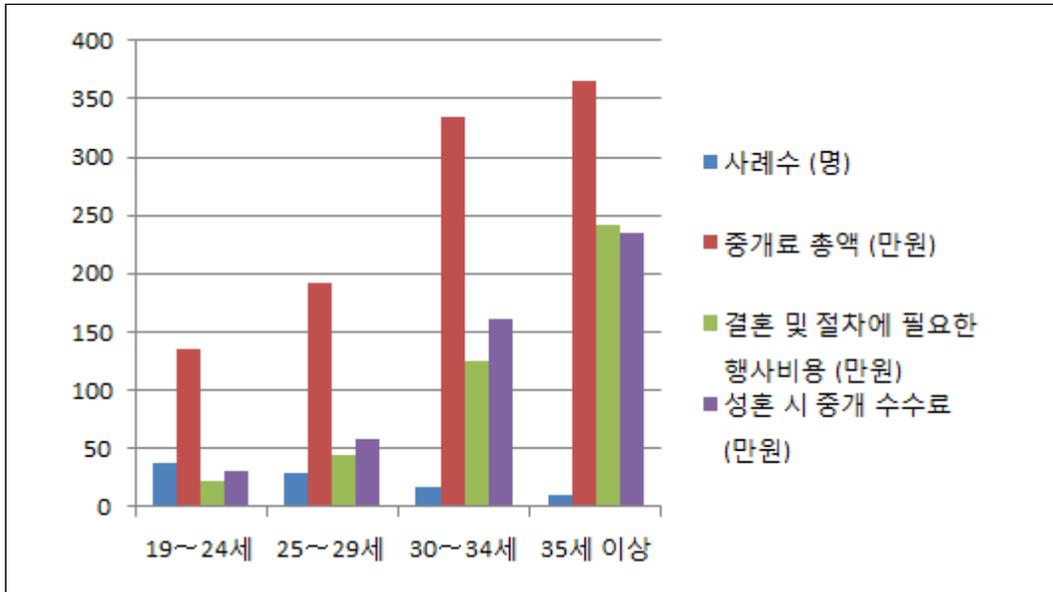
23)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2015. 10. 24.)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현대판 머슴제도가 될 것” 제하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그 사례로는 캄보디아에서 온 탄 소폰(Tan Sophoeun)씨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이다. 탄 소폰씨는 2012년 6월에 전남의 한 농장과 계약을 맺고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탄 소폰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26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1,035,080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탄 소폰씨가 한국에서 처한 현실은 근로계약서와는 너무나 달랐다. 201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탄 소폰 씨는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했으며 한 달에 쉬는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 탄 소폰 씨가 직접 작성한 근무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330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도 있다. 300시간이 넘게 일해도 월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탄 소폰 씨에게 돌아온 것은 취업자격 상실이었다. 그 사이 양심을 품은 농장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탄 소폰 씨는 취업자격 비자를 상실하였고, 기타 자격 비자로 변경된 상태이다.

24) 이는 본문에서 기술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결과이다. 이하 본문의 서술도 여기에 힘입었다.

25) 각주 24)와 같음.

26) 샌텔(2012)은 시장주의 기제와는 다른 원리로 구성되는 범주가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림 3〉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연령별)(2014)



출처: 여성가족부(2012)

인정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현상에서 파생되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로의 기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건설 분야에서 또 농촌에서 인력의 부족을 메꾸는 역할에 안주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귀국하므로 가족의 대동(帶同)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어서 관련 단체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련 단체도 이익집단으로 전환한 모습도 보인다고 한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일부는 지원받는데 관심이 있고 권리옹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사회적 연대가 돕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투쟁으로 동원하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① 어떤 종교 단체(가톨릭 이주민 회관)에서는 “돕는다”로 끝내는데 비해 ② 어떤 노동조합은 “이미 탐색 다 끝냈다. 우리를 따르라.”라는 모습으로 ‘이주노동자의 동원’에 치중하기에 이러한 성격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들은 ‘괴곤’을 느끼는 현상도 보여준다.<sup>27)</sup>

오늘날의 현상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장 규범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예를 들면 의료·교육·환경 등)에도 상품화하도록 한다고 한다(Sandel, 2012). 즉 이 영역에서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장의 규범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비윤리적 언어가 적용되고 있다(Sandel, 2012). 매매혼도 이와 관련이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것의 관계인 ‘나와 그것’이라는 요소로 분해한다. 시장주의자들은 개별적인 것의 관계로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이라고 주장한다(Brown, 1989). 이에 기초하면 상호존중에 뿌리를 둔 사회적 연대는 성립하기 어렵다.

## 2. 지역의 다문화 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역할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더 붙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로 설정되었다.<sup>28)</sup> 그 의미는 지구촌화가 되어가는 시대 환경 속에서 세대와 계층을 넘고, 민족과 인종의 구분을 넘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인류공동체의 번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렴한다(박영기·박정은, 2010). 그 사업 중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위치하고 있다.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이데올로기에 찬동하여 실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범주를 의미하는 용어가 지지기반(support base)이다(Garner, 1996). 과거의 새마을운동의 지지기반이 농촌사회였음에 비해 현재 그 몫은 현저히 감소하였기에 새마을운동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즉 농촌사회의 위축은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재촉하는데, 그 징후가 다문화현상이고 따라서 이를 새마을운동의 핵심에 놓을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거나 힘의 미약을 느끼거나 다른 어떠한 연유로 인정투쟁에 나서려 하지 않을 때, 지역사회의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일깨워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함축한다. 이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 현상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그 주요사업으로 친정부부 초청사업, 명절음식 만들기, 다문화 가요제, 전통차례지내기, 예절교육, 장 담그기, 한글교실 등을 산발적으로 추진하였고 어떤 지역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인정투쟁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는 것은 첫째, 새마을조직이 결혼이주여성들이나 이주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밀착조직과 운동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sup>29)</sup> 둘째로, 결혼이주여성들이나 이주노동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통로와 대화 창구로서 기

27) 이상은 각주 24)와 같음.

28)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념적 지향은 가족해체와 사회균열, 공동체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그 이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풍요는 물론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을을 지향하는 것이다(박영기·박정은, 2010).

29) 특히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마을부녀회장과 멘토-멘티를 맺어 상호 방문 교류하면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었고 또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주여성과 그 가족 8,623명이 한국인 멘토역 7,955명과 만나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각종 정보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있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교육 시행(부녀회장 7,955명)을 통해 차이의 인정과 문화공존 및 상호의존성 등의 가치를 확산하여 공동체 정신 함양 및 문화의 다양성 구현에도 기여하였다. 사업추진 검토시기인 2008년 5월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2007년에 비해 17,430명 증가하였고 자녀도 58,007명으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하였고, 이주

능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내국인에게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본소양을 갖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는 새마을 지도자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새마을부녀회장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의미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인권의 보호이다. 여기에서 인정투쟁과 연결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인식은 낮다.

기존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정주(2012)의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sup>30)</sup>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새마을리더과정<sup>31)</sup>이 있는데, 그 대상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 주부」로, 농촌 남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여성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sup>31)</sup> 즉 인정이나 인정투쟁의 함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구시 동구에서 실시한 글로벌새마을지도자 양성과정 결과보고서(영남대학교, 2011)에는 교육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부부로 하였고, 유아동반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수강생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유아에게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 제공함이 그 특징이다. 그럼에도 인정투쟁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sup>32)</sup> 새마을운동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https://www.saemaul.com/sub/information/museum\\_exhibition.php](https://www.saemaul.com/sub/information/museum_exhibition.php)).

30) 사업명은 “글로벌새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새마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새마을정신의 미래 개척”이라고 한다.

31) 참고로 글로벌새마을리더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청도군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새마을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다문화가정 주부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커뮤니티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으로 세부 내용은 ①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들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이 안내하고 지원; ②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유입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지역사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 함양. 셋째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 수행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① 출신 국가별, 관심 분야별로 교육을 하여 다문화가정 주부의 출신국에서 새마을연수로 청도군을 방문할 경우 국제교류의 가교로 활용; ② 주부들이 글로벌새마을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출신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되어 있다.

32) 세부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강식 및 특강, ② 한국어 실습, ③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이해 (1-2회), ④ 새마을정신의 이해 (1-3), ⑤ 새마을운동 실천 실습, ⑥ 새마을정신 말하기대회, ⑦ 글로벌 새마을운동 전수사례, ⑧ 새마을운동 현장 견학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⑨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⑩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글로벌리더의 역할, ⑪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여성 인적자원개발, ⑫ 글로벌 새마을 만들기 (1-4), ⑬ 수료식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앙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지만 인정투쟁과 관련된 활동은 없다.<sup>33)</sup>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과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한 단계 더 상승시키려면 전국적 조직을 지닌 새마을운동 단체의 역할을 이와 관련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새마을운동이란 축적기능에 우선권을 두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되, 그 보호를 낙인효과(stigmatization) 없이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sup>34)</sup>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가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들이고, 국가가 필요해서 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해 시혜적 관점을 지니기 쉽고,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주류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범주들이라는 함축이다(Taylor et al., 1992).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를 넘어 그들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즉 인정투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도 새롭게 이론을 갖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고 나름으로 공헌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뜻한다(유민봉, 2012).

## VI. 결론

이 글은 먼저 합의패러다임과 인정패러다임을 정리하고 합의패러다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인정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는 타자존중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기초하면 여전히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무르는 이들의 문제해결에 새마을운동의 역할이 있고 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패러다임 속에는 인정모델과 인정투쟁모델이 있는데, 초점은 인정투쟁모델이다. 인정투쟁모델의 핵심 개념은 정체성과 상호인정관계이다. 이는 세 가지 실현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사랑, 동등한 권리의 인정, 사회적 연대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적 권리의 불인정이나 유보, 사회적 연대에서의 배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무시나 모

<sup>33)</sup> [https://www.saemaul.com/sub/saemaul/emphasis\\_environment.php](https://www.saemaul.com/sub/saemaul/emphasis_environment.php) (2017. 4.4 검색).

<sup>34)</sup>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Taylor et al., 1992). 예컨대 장애인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따로 세울 것인가, 같은 학교에서 그들을 위한 학급을 설치할 것인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 줄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같은 논리를 지역의 다문화 현상에도 적용가능하다.

욕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 점에서 이주 및 소수자에 관한 이론의 발전 가능성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다. 특히 이들에 대한 혐오, 폄하, 범죄에 노출된 이들에게 인정투쟁모델의 도입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글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 생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산업재해, 복지혜택 침해 등 다양하다.

이 글이 강조하는 바는 새마을운동의 지지기반이 변화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지기반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지기반이 다문화 현상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주류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범주가 바로 이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정투쟁에 함께함으로써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당연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새마을운동이 기여할 것이라고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미옥. (2014).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서울: 상상너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동식. (1992). 로티의 언어관과 그 문제점.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4: 267-291.
- 김영필. (1999). 『언어와 논리』, 대구: 태일사.
- 김태성·성경룡. (1999). 『복지국가론』, 서울: 나눔.
- 남세진·조홍석. (1998).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눔출판.
- 대한변호사협회. (2012). 『2012인권보고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문성훈·이현재. (2014). 『인정투쟁』(옴긴이 서문). 서울: 사월의 책.
- 박영기·박정은. (2010). 다문화 사회와 새마을운동: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3(1).
- 서도식. (2008). 자기보존과 인정: 의사소통사회의 사회적 투쟁 모델에 대한 반성. 『철학논총』, 51: 183-202.
- 서유석. (2003). 문명의 충돌과 인정투쟁. 『대동철학』, 21: 207-224.
- 송두울. (1996). 『계몽과 해방: 헤겔과 마르크스와 베버의 동양세계관』, 서울: 한길사.
- 여성가족부.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영남대학교. (2011). 『글로벌새마을지도자 양성과정 결과보고서』, 대구: 영남대학교.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왕혜숙. (2013). 가족 인정투쟁과 복지정치: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4): 67-106.
- 유민봉. (2012).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이광석. (2014).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8(3): 147-174.
- \_\_\_\_\_. (2017). 『복지언어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광석 외. (2014). 『다문화행정론』, 서울: 조명문화사.
- 이기상. (2015). 지구촌 시대 문화인의 소통. 이광석 외. 『국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용일. (2012).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인정투쟁들: 하버마스의 다문화주의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단상. 『Homo Migrans』, 29-36.
- 이정주. (2012). 『청도군 새마을세계화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새마을연구센터.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 만들기까지』, 서울: 박영사.
- 이훈. (1984).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 분석철학연구회 (편).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울: 서광사.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장하나 의원실. (2013).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국정감사 자료』,
- 하지율. (2016). 필리버스터가 불러일으킨 집단열광: 앞으로가 중요하다. 『오마이뉴스』, 2016. 02. 25.
- Baldock, John, Nick Manning, Sarah Vickerstaff. (2003). *Social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Beveridge, William. (1943).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Brown, James Robert. (1989). *The Rational and the Social*, London: Routledge.
- Buber, Martin. (1974). *I and Thou*, Charles Scribner's Sons, 표재명 (옮김). (1994).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 Coser, Lewis A. (1977).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pvanovich.
- Cuff, E. C., A. J. Dennis, D. W. Francis, and W. W. Sharrock. (2016). *Perspectives in Sociology*. Oxon: Routledge.
- Culpitt, Ian. (1992). *Welfare and Citizenship: beyon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Sage publications.
- Forst, Rainer. (2007). "A Critical Theory of Multicultural Toleration" in Anthony Laden & David Owen (eds.)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Axel Honneth. (2003).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김원식·문성훈 (옮김). (2014). 『분배나,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서울: 사월의 책.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Penguin Books. 이상훈 (옮김)(1992).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 Garner, Roberta. (1996). *Contemporary Movements and Ideologies*. new York: McGraw-Hill.
- George, Vic and Robert Pinker. (1995). *Modern Thinkers on Welfare*. Hempel

- Hemstead: Prentice Hall.
- Harris, John and Vicky White. (2013). *Oxford Dictionary of Social Work and Social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 Haywood, Andrew. (2007). *Political Ideologies: Introduction*(4th e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onneth, Axel. (2000). *Das Ander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문성훈·이현재·장은주·하주영 (옮김). (2009). 「정의의 타자」, 서울: 나남.
- \_\_\_\_\_. (2003).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문성훈·이현재 (옮김). (2014). 「인정투쟁」, 서울: 사월의 책.
- Horton, Tim and James Gregory. (2009). *The Solidarity Society: why we can afford to end poverty and how to do it with public support* London: Fabian Society.
- Huntington, Samuel P.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Husserl, Edmund. (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이종훈 (옮김).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서울: 이론과 실천.
- Jordan, Bill. (2010). *What's Wrong with Social Policy and how to fix It*. Cambridge: Polity Press.
- Julia parker. (1977). *Social Policy and Citizenship*. London: Macmillan.
- Lee, Chulwoo. (2013). "Citizenship and the Status of 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한국이민학회 발표논문.
- Locke, John. (1966).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Oxford: Basil Blackwell, 이극찬 (옮김). (1977). 「통치론」, 서울: 삼성출판사.
- Mead, George H. (1962).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 The University of Chicago.
- Offe, Claus. (1984). *Contractions of The Welfare State*, J. Keane (ed.). London: Hutchinson Co. Ltd.
- Owen, David and James Tully. (2007).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n Anthony Laden & David Owen (eds.). *Multicultural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Macmillan.

- Pierson, John and Martin Thomas. (2002). *Collins Dictionary of Social Work*. Glasgow: Collins.
- Powell, Frederick. (2007). *The Politics of Civil Society: Neoliberalism or Social Left?*. Bristol: The Policy Press.
- Rorty, Richard.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식·이유선 (옮김). (1996).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서울: 민음사.
- Sahakian, William S. and Mabel L. Sahakian. (1993). *Ideas of the Great Philosophers*, Barnes & Noble Books. 이종철 (옮김) (1994).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 서울: 문예출판사.
- Sandel, Michael. (2012). *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 Penguin Books. 안기순 (옮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 Taylor, Charles (et al.). (1992).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tson, Conrad W. (2000). *Multicultur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Zutavern, Jan and Martin Kohli. (2010). "Needs and Risks in the Welfare State" Castles. Francis G. (et al.)(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이 광 석:**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국제행정, 다문화행정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과 대립 넘어서기에 관한 연구(2016), 행정학에서의 주권주의에 관한 연구: 행정학의 풍요로움은 새로운 방법론의 논쟁에서부터(2016), 지방복지의 개념도입과 관점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관점 차이를 중심으로(2016) 등이 있고, 최근 저서로는 『복지언어론: 복지정책학의 과학철학과 인문학주의의 융합』(2016), 『정책으로서의 행정언어: 국어정책론』(2016), 『소통학: 학문, 문화, 응용』(2016), 『발전행정 시대의 정부와 사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 (E-mail: lightstone@knu.ac.kr).

**이 정 주:** 대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2001)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새마을 개발과 국제개발협력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도농 새마을리더의 새마을운동 의식 비교연구(한 국지방행정학보, 2016), 대학 교육 및 연수 사업과 학문화에 관한 언론보도 가치평가(민족문화논총, 2016) 등이 있다(E-mail: ljj211@hanmail.net).